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공익성 실태분석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박종주** · 김성관*** · 손충기**** · 심대섭*****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청소년의 의식구조 실태분석
- I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가치체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그것을 사회적으로 구체화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해 가기 위한 다양한 조직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지난 30년 동안에 걸친 급속

한 산업과정에서 가치기준과 사회윤리의 혼돈, 그리고 파행적 사회관계 구조가 함께 겹쳐 여러가지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¹⁾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지리적 이동의 가속화로 인한 전통적 사회구조의 부분적 해체화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양태는 서구 선진 산업사회에서나 신흥공업사회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즉, 정치권력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부패, 사회기능의 타락, 그리고 청소년층²⁾이 포함된 각

*이 논문은 1990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여기에 게재된 내용은 지면제약 관계로 작성된 논문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원광대학교 행정학과교수

***원광대학교 철학과교수

****원광대학교 교육과교수

*****원광대학교 사회복지과교수

1) ① 김태길, 우리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1), pp.46-50.

②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사회변화와 윤리, (서울: 범문사, 1990) 참조.

2) 청소년의 범위는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연령에 의한 구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으로는 중·고생 연령층을 일컫는다. 발달심리학에서는 대개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는 12-22세 사이의 연령층을 청소년으로 포함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중·고생과 20세미만의 근로자들을 청소년들로 지칭하고자 한다.

중 범죄의 극렬화 및 대형화 등 특이한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급격한 사회변동속에서 모든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도덕률이나 윤리규범이 시대변화에 맞게 형성되지 않은채,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점과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겠다.

이를테면, 서구 선진산업사회의 경우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정착되기 훨씬 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성원들이 기독교 윤리규범을 생활속에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사회규범으로 작용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도 이른바 ‘멸사봉공’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무사도’정신이 여러 사회부문에 계승되어 근대화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경우를 보면 근대이전인 조선조 시대에는 ‘인의예지’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 본위의 윤리규범이 강조되었으나 지나친 형식주의·외레주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성원들의 의미있는 삶의 가치체계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양반지배계층 사이에는 유교적 생활규범이 그런대로 내면화되어 이어져왔으나 일제의 식민통치, 해방후 토지개혁, 6.25동란후의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그 기저가 뿌리채 흔들리고 굽기야는 역사적·문화적 단절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조선조시대의 봉건제적 신민문화(臣民文化)와

일제하에서 형성된 식민문화, 그리고 해방후 물밀듯이 들어온 미국의 표피적 시민문화가 혼재되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차원에서 삶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나타난 정치권력의 전횡, 소수재벌의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외면, 한탕주의적 사회풍조, 그리고 대중들의 가족주의적 집단 이기주의 등이 사회에 미만되면서 가치질서는 붕괴되고 구조적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도덕성 붕괴현상은 비단 한국사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며,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직면한 인류공동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윤리적 헤이현상은 개인 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간단히 이해될 수 없으며 현대사회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사회병리가 반영된 복합적인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인 변동에 의한 가정해체, 가치혼란, 소외문제, 빈부격차, 교육문제 등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도덕성 또는 도덕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핵심적 문제들, 즉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인간은 합리적인가·비합리적인가? 인간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두는가?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³⁾

3) ① 빌 E.포리샤 바바라 E.포리샤 (서규선 최문기 옮김), 도덕성 발달과 교육, (서울:종로서적, 1990), pp.27-28.

② 김태길 외, 성숙한 시민 개방된 사회, (서울:자유시대사, 1989), pp.238-241.

③ G.Moran, *Religious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9), pp.165-173.

그렇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서양에서 여러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전통은 합리주의사상으로부터 비롯하여 루소와 칸트를 거쳐 현대에는 피아제(Jean Piaget)와 콜버그(L. Kohlberg)등으로 대표되는 도덕성발달론자들로서 기본적으로는 선천설적(先天說的) 견해를 띤다. 이들에 따르면 도덕성 함양이란 인간이 본래 타고난 지적·정서적 능력을 그 자연적 성향에 따라서 자유로이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좀더 덧붙이면 인성발달 단계에서 일단 이해의 능력이 성숙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며 타인들의 관점도 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사회적인 협동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적 도덕성과 사회적 공익성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찌기 동양의 불교나 유교사상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함유하고 있기때문에 '마음담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부처와 같은 인격을 갖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유교적 전통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본디 착한 것인데 후천적 요인들에 의해 거칠어지고 사악해졌으므로 자기성찰과 수양을 통해 단련하면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 발달에 대한 또 하나의 이론적 흐름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험론에서 유래하여 흄(D. Hume)을 위시한 공리주의자들,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최근의 사회학습이론자들로 이어지고 있는 후천설적(後天說的) 견해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적 내용의 하

나는 도덕교육의 목적이 인간에게 결여되어 있는 동기, 즉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행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심리적 과정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간의 파괴적 충동들을 통제하기 위해 발달시켜야만 할 외적 및 내적 자제력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고찰한 바와 같이 삶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지워 볼 때 도덕성의 기원이 선천적이든 또는 후천적이든간에 도덕성 및 공익성의 올바른 함양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어느 입장이 참이든간에 인간은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육과 내면적 수양을 병행해 도덕성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여하튼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과제는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도덕성 및 공익성의 빈곤이다. 이같은 윤리적 황폐화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제아무리 경제성장 중심의 외형적 사회발전을 이룩해도 그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규범 그리고 사회구조를 창출해 내고 이것을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시켜 가는 일이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개혁과 함께 사회성원들의 정신·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회적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의 변화추이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전북지역 중·고생 및 근로 청소년들의 도덕성·공익성 관련 의식구조 실태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具案)하는데 시사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주로 질문지법에 의거하되 정부관계기관에서 발표한 2차자료도 보완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및 공익성의 개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말은 두가지의 개념적 연원을 지닌 즉 한자어인 도(道)와 덕(德)이 합성된 말로서의 도덕과 서양어인 Moral이 번역된 말로서의 도덕이다.

전자가 형이상학적 도리 내지는 우주적 덕화(德化)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심원한 것이라면 후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행위해야 할 규범이나 그것의 근거를 학문적 엄밀성을 전지하면서 찾으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전자가 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도덕의 문제를 보려한 데 비해 후자는 주로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서 도덕의 문제를 보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전통적 도덕관이 근 현대의 서양사상이 유입되기 이전의 대부분의 긴시간 동안 한자어의 합성어인 도덕관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이

다.

다음으로 공익 *public interest*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극히 다의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공익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는 공동선, 공공의 행복, 사회적 이익, 국민전체의 이익, 공중도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용어들은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본질적 의미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공익에 대한 사상적 논의는 동양에서 보다는 서양에서 더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즉 고대의 플라톤(B.C.427-347), 근대의 홉스(T.Hobbes, 1588-1679, 영국), 루소(J.Rousseau, 1712-1778, 프랑스), 벤담(J.Bentham, 1748-1832, 영국), 그리고 현대의 벤틀리(A.Bentley), 플래스맨(R. Flathman)등으로 이어지는 공익성 논의는 20C 이후 정부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활발해져 가고 있다.⁵⁾

따라서 공익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프만(W. Lippman)은 “공익이란 인간이 바르게 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공평무사하게 *disinterestedly and benevolently* 행동할 때에 선택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⁶⁾ 그런가 하면 콕스(J.W.R Cox)는 “공익이란 다수의 이익과 동일한 것”⁷⁾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플래스맨(R. Flathman)은 공익의 규범적 도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공익의 실체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 즉 실체적 가치(예, 인간 자유의 극대화, 정의구현 또는 안전확보 등), 도덕적 원칙 또는

4) 朴正澤, 公益의 政治行政論, (서울: 대영문화사, 1990) 참조.

5) Glendon Schubert, *The public interest*, Illinois: Free press of Glencoe, 1960. 참조.

6) Walter Lippman, *The public philosophy*, London: Hamish Hamilton, 1955, p.4.

7) J.W.R Cox, “The appeal to the public interes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 No.3, pp.229-230.

도덕적 훈시 *precepts* 등을 들고 있다.⁸⁾ 또한 소라우프(F. Sorauf)는 공동소유가치로서의 공익, 현명하거나 더 우위에 있는 이익으로서의 공익,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공익, 그리고 정의되지 않는 개인적 견해로서의 공익으로 범주화하고 있다.⁹⁾

이처럼 공익의 개념은 학자들간에도 합의된 바가 없는 다의적이고 가치함축적 용어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말할 때는 무엇인가 전체를 위한 바람직하거나 정당하고 올바른 행위 또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실은 공익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은 사회구성원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¹⁰⁾ 그렇다고 하여 사회구성원의 ‘모든’ 이익이 반드시 공익일 수는 없고, 사회구성원의 이익중에서 사회가 정당하다고 수용하는 이익만이 공익에 포함된다.

2. 청소년의 도덕성·공익성의 발달

앞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덕성과 공익성이라는 용어는 이 두 개념이 뚜렷이 구분되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인지적 성질이 강한 도덕성 보다는 실천적 관습적 행위의 속성이 강한 공익성을 보다 강조하고자 한 의도에 바탕하여 이 두 용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연구자들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성이란 도

덕성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도덕성에 공익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도덕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한 인간의 심리학적 발달과정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학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 과업—도덕성의 함양과 내면화—을 학습하는 과정은 길고도 점진적인 과정이며 청소년기야말로 이러한 과업을 학습해 내는 가장 좋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도덕성이란 용어를 학문의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대체로 성격의 통합적 특징을 사회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문제되는 특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대체로 인지적 차원 정의적(情意的) 차원·행동적 차원의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인지적 차원으로는 도덕적 개념(또는 의식) 판단이 포함되며, 정의적 차원에는 도덕적 감정 태도 등이 포함되며, 행동적 차원에는 도덕적 실천력 등이 포함된다.

Kant는 도덕성을 정언적(定言的) 명령(Kategorischer Imperative)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나의 선험적·무조건적인 보편성으로 파악했다. 또 Kohlberg는 도덕성이란, 개인에 의해서 내면화 되어진 사회적 행동의 문화적 규칙으로서의 양심이라고 정의하였다.¹¹⁾ 따라서 도덕성 발달이란 이와같은 기본적인 문화적 규칙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보는

8) Richard Flathman,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Wiley, 1966, pp.66-67.

9) Frank Sorauf, "The conceptual muddle," in Carl Friedrich(ed.),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Atherton press, 1962 p.162.

10) 박정택, 전제서, p.76.

11) Kohlberg, L.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Hoffman, M.L, and L.W. Hoffman(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Russell Sage Fowndation, 1964, p.384

것이다.

현대에 와서 도덕성에 관한 교육심리학의 연구에 최초로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Hartshorne와 May가 어린이의 도덕적 행위에 관해서 방대한 연구물을 발표하고, Piaget가 어린이의 도덕적 판단에 관한 커다란 연구를 발표(1932)한 이래, 1950년대 이후에는 하바드 대학 교수인 Kohlberg의 연구가 매우 큰 학문적 연구활동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Hartshorne and May는 정직성과 자제력을 중심으로 광범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그 연구의 중요한 몇 가지 결론 중에서 특히 이후 연구에 자극이 된 사실은 도덕성이란 인성적 특성으로서 보편적 덕목행위가 아니라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한 반응이라는 것이다.¹²⁾

이러한 결론은 오래전부터 탐구되어 온 지(知)와 행(行)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심리학적 증거로 취급된다. 즉, 덕목에 따라 행동하는 어떤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덕목을 알고 있느냐는 치더라고 어떤 상황에서는 도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도덕성이란 상황에 따른 특수반응이라는 결론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나 실제 도덕교육의 사태에 시사하는 바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도덕성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한 반응이라면 도덕성을 기르는 일이란 일반적 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가능한 모든 상황

을 열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판단케 하거나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¹³⁾ 요컨대 도덕성이란 그것을 육성하려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발달되는 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III. 청소년의 의식구조 실태분석

“청소년의 일탈유형 변화추이

지난 10여년동안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소년범죄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문제청소년의 행동을 모두 포함시킨다. 고영복은 문제청소년의 행동을 불량성 행동, 퇴폐성 행동, 비판성 행동의 셋으로 분류한다.¹⁴⁾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① 소년풍기사범 ② 약물남용실태 폭력 가출 이성교제로 나누어 그 실태와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년풍기사범의 변화추이

소년풍기사범이란 치안본부가 미성년의 풍기 문란행위로 단속대상을 삼고있는 다음의 사안들을 말한다. 흥행장출입, 음주, 깃연, 싸움, 불량교우, 남녀혼숙, 흥기소지, 불량집단가입, 환각물소지, 기타.¹⁵⁾

청소년백서가 분석한 86년의 미성년자 풍기 사범 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면 깃연 29.2%, 음

12) *ibid.*, p.483

13) 손충기, “도덕성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p.8.

14) 고영복, 청소년의 비행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제54회 청소년논단발표, 1988.

15) 치안본부, 소년풍기사범단속및 처리사항 통계분류내용, 청소년백서, 1990, p.378.

주 16.9%순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19.8%, 24.7%가 감소하였다. 3년후인 89년의 유형별 변화는 짝연 55.6%, 남녀혼숙 33.4%, 음주 31.4%, 싸움 17.2% , 흥행장출입 4%, 흥기 소지 1%순으로 나타났다. 짝연 음주율의 급상승은 물론 남녀혼숙, 흥행장출입, 싸움(폭력)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¹⁶⁾

2) 약물남용실태

약물남용이란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함을 뜻하고 있으나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마비, 금단, 중독, 습관성을 일으켜 개인·가정·사회·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89년 체육부 주관 약물남용실태조사 종목은 다음과 같다. 음주·흡연·각성제·본드·대마초·안정제·최면제·마약·히로뽕¹⁷⁾·음주·흡연이 그 자체로서는 나쁜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청소년의 성인모방의 가장 가까운 지표이고 지나친 음주 흡연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러 조사자료에 의하면 문제학생일수록 또는 비행소년이 음주 짝연율이 높다. 89년의 조사에서 중학생(남)의 35.3%, 여고생의 52.8%가 음주 경험이 있고 짝연도 26.5%, 15.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주로 구하기 쉽고 값이 싼 본드 대마초 각성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의 조사에서 각성제경험이 중학생 15%-20% , 고교생 33%-35%, 근로청소년 35%-44%, 비행청소년 34%-43%이다. 대마초 경험은 중학생 0.3%-0.7%, 고교생 0.4%-4.7%, 근로청소년 4-6%, 비행청소년 46-61%이다.¹⁸⁾ 국민소득 향상과 퇴폐풍조 확산으로 청소년의 마약류사범도 급증하여 86년대비 1989년의 통계는 4배(406%)에 달하고 있다.¹⁹⁾

3) 청소년의 폭력

소년범죄에서 청소년의 폭력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다. 청소년의 폭력은 입건 이전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현수의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32%정도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고등학생의 20% 정도가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²⁰⁾

4) 가출

치안본부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년에는 주로 봄철에 발생하던 것이 근래에는 연중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985년 이후 5년간 평균 2천5백명이 가출하였고 1989년에는 41,988명이 가출하였다.²¹⁾ 청소년의 가출은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심리와 가

16) 청소년 백서, 1987, pp.276-278.

17) 체육부, 약물오 남용예방교육지도지침서, 1990.11, p.43.

18) 전계서, p.45.

19)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청소년백서, 1990, p.364

20) ① 김현수, 청소년문제행동과 지도방안, 1991.

②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교육보고서.

21) 청소년백서, 1990, p.383.

정에서의 무관심에서 오는 탈선으로 보고 있으며 레저산업의 급증과 생활환경의 다양성에서 원인을 찾는다.

5) 이성교제

의식주의 개선과 보건의료의 향상으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수준은 계속 상승되고 있다. 건강한 남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청소년의 이성교제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성교경험의 비정상적인 것과 무책임성이다.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상담실에서 전화·면접·서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4년간의 상담유형별 순위는 1986년까지 학업 진로문제가 1위, 성문제가 2위였던 것이 1987년에는 성문제가 1위(39.6%), 학업 진로문제가 2위(20.1%)로 바뀌

었다. 또한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상담자들의 지나친 성행위묘사를 해오는 전화라고 한다.²²⁾

2. 청소년의 도덕성 및 공익성 관련의식 및 행동

다음에서 탐구할 내용은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비도덕적·비공익적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 자신·가정·친구·학교·사회 등의 제 측면에 대한 가치관과 불만, 평가 등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내 중·고등학교생과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 1820명을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대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계	구 분		성 별		주 성 장 지 별		
		학 생	근로청소년	남	여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어 촌
사 레 수	1820	1150	670	907	913	234	1016	570
구성비율 (%)	100.0	36.8	49.8	50.2	12.9	55.8	31.3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질문지」로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비교적 가벼운 일탈행동으로부터 (늦게 집에 들어감, 할일 없이 거리 돌아다님 등) 심각한 일탈행동 (성 관계를 가짐, 친

구 돈뺏음)까지 24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행동에 대해서 문제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영역은, 첫번째 영역의 행동목록과 동일한 일탈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그러한 행동

22) ① 강문희, 상담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연구,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상담실, 1988.

② 한국일보, 1988.5.4. 「청소년 성문제대책 급하다」.

③ 최상진, 청소년과 이성교제, 마산사회복지사업재단주최 제5회 심포지움, 1983.7. 보고내용 참조.

을 한 회수를 ‘자주 있다’ ‘가끔 있다’ ‘없다’ 등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세번째 영역은 청소년의 생활문제 및 가치관, 불만요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가정영역,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영역, 동료영역, 가치관 및 태도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가정영역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억압,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 등으로 세분되며 각 하위영역에는 3-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또 자신의 성격 및 심리적 영역에는 지적 열등감(학생인 경우), 자제력 정도, 경제적 열등감 등이 포함되며, 동료관계영역에는 동료의 가치관, 불량교우유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치관 및 태도영역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가치관이 포함된다.

그리고 네번째 영역은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배경을 묻는 질문영역으로 자료의 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집단별(학생과 근로청소년) 성별, 연령, 주성장지역, 가족

〈표 2〉

질문지의 구성내용

영역	구분	내용	문항번호	반응방식
1.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태도		“집에 안들어감”의 24개 청소년 일탈행동 목록	A2-A25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선택지에 ○표
2. 청소년 일탈행동 경험여부		“집에 안들어감”의 23개 청소년 일탈행동 목록	B1-B25	각 일탈행동의 경험 정도를 표시
3. 청소년의 생활문제, 가치관, 불만		① 기성세대에 대한 태도 ② 부모의 억압 ③ 부모의 무관심 ④ 가족간의 유대감 ⑤ 자제력 정도 ⑥ 경제적 열등감 ⑦ 가치관 ⑧ 동료의 가치관 ⑨ 불량교우 ⑩ 지적열등감	C1-C5 C6-C10 C11-C14 C15-C18 C22-C25 C26-C28 C29-C33 C34-C37 C38-C40, C42, C43 C47-C49	각 문항내용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정도를 반응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
4. 배경원인		성별, 연령, 주성장지, 가족구성, 경제수준, 부와 모의 학력, 직업, 종교유무, 썬클활동여부	D3, D4 배경변인들	
5. 기타		* 청소년범죄의 원인 * 개인의 행복과 사회발전과의 관계	D1, D2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선택지 선택

구성, 가정의 경제수준, 부와 모의 교육정도 및 직업, 종교유무, 단체활동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분석결과는 집단별, 성별, 단체활동여부, 종교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문항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과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질문지는 모두 부호화 과정을 거쳐 컴퓨터로 통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청소년의 배경변인별 각 문항에의 반응을 백분율(%)을 계산한 후 집단별 백분율의 차이가 의의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X2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답자 수가 1820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자료처리한 때문이며 각 표의 전체안은 학생집단과 근로청소년 집단을 합한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의 질문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1 비도덕적 비공익적 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

인간이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인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한결같이 규명해 온 바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이 비도덕적이고 비공익적이라고 할 만한 행동목록들에 대한 태도와 그러한 행동을 경험한 정도(횟수)를 규명해 보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비도덕적 비공익적」 행동이란 사회심리

학이나 교육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엄격한 의미로 규정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생활과정에서 일반적인 생활기준(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예컨대, 집에 늦게 들어 간다든지, 목욕탕에서 물을 함부로 쓴다든지 하는 행동)에서부터 반사회적 행동(예컨대, 친구 돈 뺏는 것, 길 가는 사람 협박하기, 성관계를 갖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집에 안 들어감」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66.1%가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33.9%는 “해서는 안 될 나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집에 안 들어가는 행동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청소년,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이 행동을 문제되지않거나 그럴 수 있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술 마시기」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14.1%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53.6%가 “그럴 수 있는 행동”으로 응답하였으며 32.2%는 “해서는 안 될 나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태도를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근로청소년, 남자, 종교가 없는 청소년,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들이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다.

이 「술 마시기」경험을 보면 전체의 9.6%가 “자주”, 48.2%가 “가끔”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2.3%는 술 마신 경험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집단별 술마신 경험은 이에 대한 태도의 반응률과 일치하고 있다.

「이성친구와 입맞춤 또는 포옹하기」라는 항

목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14%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45.6%는 “어쩌다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응답률을 보여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지니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근로청소년과 남자, 종교가 없는 청소년, 그리고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허용적인 태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의 45.9%도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특기할 만 하다.

경험은 전체의 4.1%가 “자주”, 28.8%가 “가끔”으로 응답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약3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와 입맞춤이나 포옹의 경험은 근로청소년, 남자, 단체활동중인 청소년들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계를 가짐」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6%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24.8%가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는 태도를 보여 32.4%의 응답청소년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단별로는 근로청소년이(47.6%), 남자의 49.5%,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36.4%가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의 경험정도는 전체의 19.5%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용적인 태도와 경험과는 각 집단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근로청소년의 31.1%, 남자의 23.1% 등이 성 관계 경험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의 12.7%도 성 관계 경험자임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담배 피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경험)을 보면, 전체의 37.4%가 괜찮은 행동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근로자

의 47%, 남자의 46.6%, 무종교 집단 42.8% 등이 특히 높은 허용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의 집단간 응답률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담배 피우기」경험을 분석한 바를보면, 17.7%가 “자주”, 17.9%가 “가끔”등으로 35.6%가 담배 피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50%이상, 남자의 52%,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34.2%,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담배피우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약속 안 지키기」에서는 전체의 57.3%가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청소년보다는(37.1%) 학생이(53.1%),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리고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더 약속안지키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항목에 대한 행동을 보면, 전체응답자의 53.3%가 약속 안 지킨 경험이 있으며, 학생(62.3%), 여자(62.1%), 종교를 가진 청소년(64.2%),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약속 안지키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유없이 학교 또는 직장에 안 가기」항목에 대한 반응을 보면 27.5%가 괜찮은 행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19.3%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한 태도는 남자가 보다 긍정적이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실제의 행동은

비교한 바에 의하면 근로청소년(25.2%), 종교를 가지지 않은 청소년(19%)들 중에서 이유없이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공중도덕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 「공중목욕탕에서 물 함부로 쓰는 행동」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응답자의 11.9%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46.6%가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는 태도를 보여 약 6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물아껴쓰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또 실제로 「목욕탕에서 물 함부로 쓰는 행동」을 한 청소년은 57.7%에 이르고 있어 공중도덕과 절약하는 행동이 크게 미흡함을 보인다.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34.7%가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여 전체의 41.7%의 청소년들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항목에 문제되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반응한 응답자는 근로청소년(49.6%), 남자(49%),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48.1%)들에게서 보다 높으며 이러한 구분, 성별, 종교유무별 집단간 응답률의 차이도 모두 0.1%수준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의 행동(경험자)도 태도와 일치(펜찰다는 응답과 실제 경험자가 집단에 따라 일관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유흥업소 출입경험자가 많다는 것이다.

「남여 함께 캠핑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괜찮은 행동이라는 반응이 높다. 전체응답

자의 24.3%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51.1%가 “그럴 수 있는 행동”으로 봄으로서 76.4%가 결코 해서는 안될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허용적인 태도는 근로청소년일수록(83.8%), 남자일수록(81.4%),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80.3%) 더욱 강하다.

그러나 실제 행동을 한 청소년은 36.9%로서 태도와는 다소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근로청소년(48.3%), 남자(38.9%), 단체활동중인 청소년(40.4%)일수록 경험자가 많게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교통질서의식과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빨강 신호등인데도 길 건너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 분석하였다.

전체응답자의 3.8%가 “문제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았으며 48.8%는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50%이상이 신호등 지키기 행동이 적절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 행동을 한 청소년은 전체의 63.4%에 이르고 있으며, 남자(65.4%)와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신호등 위반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2 청소년 일탈행동의 원인

청소년들의 범죄(일탈행동)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3>, 전체 응답자의 47%가 “가정불화나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라는 반응을 보여 청소년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이 가정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청소년 자신들의 지적이

〈표 3〉

청소년 일탈 행동의 원인

선택지	집단별 전 체	구 분		종교 유무		씨클활동여부		성 별		경 제 수 준		
		학생	근로자	유	무	가입	없음	남	여	상	중	하
1. 자신의 나쁜 생각이나 이기심 때문에	330 (18.2)	198 (17.3)	132 (19.7)	151 (17.9)	183 (19.0)	111 (18.9)	220 (18.1)	185 (20.7)	148 (16.2)	20 (12.7)	174 (19.3)	140 (18.6)
2. 나쁜 친구들 때문에	246 (13.6)	167 (14.6)	79 (11.8)	111 (13.2)	130 (13.5)	83 (14.2)	158 (13.0)	146 (16.4)	92 (10.1)	28 (17.7)	112 (12.4)	100 (13.3)
3. 가정불화나 부모들의 무관심 때문에	853 (47.0)	565 (49.3)	288 (43.1)	402 (47.6)	430 (44.7)	259 (44.2)	571 (47.0)	357 (40.0)	477 (52.3)	70 (44.3)	424 (47.0)	342 (45.5)
4. 학교가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128 (7.0)	92 (8.0)	36 (5.4)	53 (6.3)	68 (7.1)	32 (5.5)	88 (7.2)	51 (5.7)	70 (7.7)	15 (9.5)	63 (7.0)	43 (5.7)
5. 정부나 정치인들의 잘못 때문에	128 (7.0)	62 (5.4)	58 (8.6)	41 (4.9)	62 (6.4)	35 (6.0)	69 (5.7)	65 (7.3)	39 (4.3)	12 (7.6)	37 (4.1)	55 (7.3)
6. 오랜세월에 걸쳐 형성된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에	120 (6.6)	60 (5.2)	73 (11.0)	83 (9.8)	88 (9.1)	65 (11.1)	106 (8.7)	83 (9.3)	86 (9.4)	12 (7.6)	90 (10.0)	69 (9.2)
7. 기 타	5 (0.3)	2 (0.2)	3 (0.4)	3 (0.4)	2 (0.2)	1 (0.2)	3 (0.2)	5 (0.6)		1 (0.6)	2 (0.2)	2 (0.3)
계	1815	1146	669	844	963	586	1215	892	912	158	902	751
$\chi^2(dx)$		9.06(6) *		4.17(6)		5.60(6)		47.95(6) ***		19.59(12)		

다.

청소년 문제의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나쁜 생각이나 이기심 때문에”로 18.2%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세 번째는 “나쁜 친구들 때문에”로서 13.6%의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결국 청소년 자신들은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친구와 자신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측면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비행이란 잘못된 사회구조나 정치의 잘못 등 외부에 그 원인을 귀인시키기 보다는 보다 가까운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청소년 문제가 해결불가능하다거나 어쩔 수 없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라기 보다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노력여하에 따라 예방과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고수준이 사회구조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는 없다.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각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각 집단의 응답률 순위 항목은 동일한 가운데 상대적인 백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학생과 근로청소년을 비교해보면, 학생들이 가정불화나 부모의 무관심, 나쁜 친구요인에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나쁜 생각이나 이기심 요인과 왜곡된 사회구조, 정치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다. 또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는 가정과 부모요인에 (52.3%)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남자는 친구(16.4%)와 자신에(20.7%)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가정불화나 부모의 무관심 요인에 여자가 보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성별 간 응답률의 차는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의 유의성이 밝혀졌다.

2.3 개인의 행복과 사회발전과의 관계

〈표 4〉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전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응답자의 47.2%가 “먼저 사회전체가 잘 되어야 비로소 개인이 행복해 진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6.1%는 “먼저 개인이 행복해져야 비로소 사회전체가 잘 된다”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발전 우선적 사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양자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반응은 6.7%, “잘 모르겠다”가 10.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회전체우선적 사고가 강세를 보이지만 개인우선적 사고(개인주의)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문항에의 응답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각 집단에서 동일하나 학생이 사회우선적 사고(48.5%)가 더 강함에 비하여 근로청소년들 중에는 개인우선적 사고가 더 높다.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사회우선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체 활동중인 청소년의 경우 개인우선적 사고가 단체활동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약간 강하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의 도덕성·공익성 관련 의식구조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구안(具案)하는데 주요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다음에 청소년들의 일반적 의식성향과 도덕적 공익적 태도 및 행동 특성을 간

〈표 4〉

개인행복과 국가사회 발전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

집단별 선택지	전 체	구 분		종교 유무		씨름활동여부		성 별		경 제 수 준		
		학생	근로자	유	무	가입	없음	남	여	상	중	하
1. 우선 개인의 행복이	651 (36.1)	384 (33.6)	267 (40.3)	298 (35.4)	351 (36.4)	220 55	425 50	209 (34.8)	342 (35.0)	44 (28.0)	335 (37.1)	273 (36.6)
2. 사회 발전이 우선	852 (47.2)	554 (48.5)	298 (45.0)	409 (48.6)	447 (46.4)	(6.5)	(5.2)	428 (48.1)	425 (46.8)	76 (48.4)	421 (46.7)	358 (48.0)
3. 별관계 없음	121 (6.7)	83 (7.3)	38 (5.7)	42 (5.0)	80 (8.3)	218 (25.8)	203 (21.1)	62 (7.0)	57 (6.3)	16 (10.2)	53 (5.9)	52 (7.0)
4. 잘 모르겠다	180 (10.0)	121 (10.6)	59 (9.0)	92 (10.9)	85 (8.8)	572	711	90 (10.1)	85 (9.4)	21 (13.4)	93 (10.3)	63 (8.4)
계	1812	1146	666	894	912	845	964	889	909	159	902	746
x ² (df)		10.21(2)***		14.37(2)**		8.03(2)*		1.81(3)		10.88(6)		

추려 보고, 곁들여 그 시사점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들의 일반적 의식성향

첫째,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대해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어른들, 청소년들의 심정과 상태를 이해할 줄 모르는 어른들, 금지와 제약 일변도로 행동을 통제하려고만 하는 어른들, 대화상대가 되어 주지 못하는 어른들, 이러한 기성세대들에 대하여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생각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상당한 정도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 자신들이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그 관심의 성격인 바, 예를들어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든지 “놀지 말고 공부해라”, 혹은 “왜 부모속만 썩이느냐”라는 말이나 성화의 반복을 관심으로 본다면 그러한 형태의 관심은 올바른 의미의 관심은 아닌 것이다. 또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으며, 부모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호소함으로써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적절치 못하며 부모의 대화방법에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 중에는 경제적 금전적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 또한 청소년들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돈과 배경이 든든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사회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요즘 세상에서는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청소년들 생각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또는 성인들의 건전치 못한 행태의 반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나 건전육성은 건전한 성인들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도모해 갈 때 가능하리라 본다.

넷째,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받는 바가 큰바,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부정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친구가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친구들 중에 가끔 규율을 어기거나 금지된 일을 하기를 좋아하거나 가출한 친구, 부모와의 사이가 나쁜 친구, 법을 어긴 친구, 흥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친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의 영향이 큰 청소년기의 특성에 비추어 좋은 친구 사귀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학생청소년들 중에 지적 열등감, 특히 학업성적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 비록 성적은 낮더라도 의미있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집어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자신들은 청소년의 범죄나 일탈행동의 원인을 가정불화나 부모들의 무관심이라는 것이 거의 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의 생각이다. 또 자신의 나쁜 생각이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과 나쁜 친구들 때문 등에서 주로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부모와 자신과 친구가 청소년 문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한 부모의 위치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 청소년들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발전과의 관련성에서 사회발전 우선적 사고가 강하기는 하나 개인주의적 사고도 강한 편이다.

일곱째, 종교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도덕적 공익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에 비하여 태도가 건전하며 문제행동을 경험한 수가 의의있게 적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생각을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두 집단간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활동 경험이 사고의 변화나 육성보다는 행동과 습관의 변화와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좋은 행동의 변화와 육성에 종교적 경험은 분명히 공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덟째, 오늘날 학교 안밖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재고되어야 한다. 단체활동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 특히 생각과 태도의 건전육성이 주 목적일 것인 바, 현재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태도 행동 가치관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단체활동이 임시위주의 학교생활 때문에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정서순화, 체력단련, 취미개발, 사회봉사, 지도력과 책임감 배양, 직업기술훈련 등 학교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부분을 보충하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도덕성 및 공익성 관련 태도와 행동특성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 세대가 일탈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기며, 그 폭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예를들어 청소년들이 “꽤 많은 행동”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반응한 행동을 응답율이 높은 순위로 보면 「집에 늦게 들어감」, 「할 일 없이 거리 돌아다님」, 「남녀 함께 캠핑가기」, 「술 마시기」, 「집에 안들어감」,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감상」, 「이성친구와 입맞춤 또는 포옹하기」, 「공중목욕탕 물 함부로 쓰기」 등이며 나쁜 행동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순위는 「친구 돈 뺏음」, 「길 가는 사람 협박하기」, 「수업료 또는 공금을 용돈으로 씀」, 「칼 가지고 다님」, 「친구와 패싸움」, 「이유없이 학교 또는 직장 결근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행동내용에 대한 경험여부를 보면,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순위는 「집에 늦게 들어감」, 「길 거리에 휴지버림」, 「할 일 없이 거리 돌아다님」, 「빨강 신호등인데도 길 건너기」, 「공중목욕탕 물 함부로 쓰기」, 「술 마시기」,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약속 안 지키기」, 「집에 안들어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의 순위는 「친구 돈 뺏음」, 「길 가는 사람 협박하기」, 「칼 가지고 다님」, 「화장실에 낙서하기」, 「친구와 패싸움」, 「수업료 또는 공금을 용돈으로 씀」, 「이유없이 학교 또는 직장 결근하기」, 「성 관계를 가짐」 등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청소년들의 도덕성이나 공익성의 수준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은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단지, 집에 안 들어가는 행동이나 늦게 들어가는 일, 길거리에 휴지 버리는 일, 공중목욕탕에서 물을 함부로 쓰는 행동, 할 일 없이 거리를 돌아 다니는 행동, 신호등 지키기 등은 가정과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지도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일은 부모들이 자녀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그럴리가 없다”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자의 친구 돈을 뺏은 경험, 수업료 또는 공금을 용돈으로 쓴 경험,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본 경험, 성관계를 가진 경험, 칼을 가지고 다닌 경험, 길 가는 사람 협박한 경험 등을 한 청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밝히는 광범위한 연구가 청소년 전전육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이 거의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어떤 행동을 대체로 “괜찮은” 혹은 “그럴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허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할수록 그러한 행동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태도가 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라는 지금까지의 인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과 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행동을 기르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태도를 육성하는 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 「무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덕목위주, 언명주의적 훈육보다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모형을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이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

요컨대, 도덕적 공익적 행동은 삶의 전인적 결단의 모습이라고 전제할 때, 청소년들의 도덕성 및 공익성 함양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각자의 몫을 담당하면서 아울러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때만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경동(1982), *발전의 사회학*, 서울:문학과지성사.
- 김영모편(1985), *현대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재은(1976), “어린이의 도덕성 발달”, 이성진 허형 편, *국가발전과 어린이*, 서울:배영사.
- 김태길(1989) 외 3인, *성숙한 시민 개방된 사회*, 서울:자유시대사.
- 라인홀드 니이버(1972),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울:보진재.

박용현 이돈희 이흥우(1982), 도덕과 교육(I), 서울대학교 출판국.

박정택(1989), 공익의 정치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법무부, 비행소년통계.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빌 E포리사 바바라 E포리사(1990), 최문기 서규선 옮김, 도덕성 발달과 교육, 서울:종로서적.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논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5회심포지움보고서, 현대사회와 청소년, 1983.7.

이돈희(1975), 도덕성의 개념과 도덕교육, 정범모 편, 도덕과 교육, 서울:능력개발사.

이성진외(1979), 국가발전과 청소년, 서울:배영사.

이종수외(1990), 사회학, 한국사회학연구소, 서울:민영사.

정우식(1986), 청소년문제, 그 실상과대책, 서울:삼성출판사.

조순 외5인(1984), 한국사회의 발전논리, 서울:홍사단 출판부.

존롤즈(1986), 사회정의론(황경식 역), 서울:서광사.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75), 최근 소년비행양상의 변화와 대책에 관한조사연구.

차재호(1980), 한국인의성격과 의식,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체육부(1990), 약물 오 남용예방교육지도지침서.

표갑수(1986), 청소년비행원인이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9-03(1990), 청소년비행

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연 1.

한준상(1989),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학교출판부.

현대사회연구소편(1984),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2. 외국문헌

Carl Friedrich(ed.) (1962),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Norton & Company.

Gabriel Moran(1972), *Religious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Alabama: Kay, W, *Moral Development*, London: Geoge Allen and Unwin.

Moral Education, London: Geoge Allen and Unwin, 1975.

Kluckhohn(1951), C., Mirror for man, H.A,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Kohlberg, L.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and Action, N.Y: Osgood C.,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N.Y.: Ronald Press, Co..

Richard Flathman(1966),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WILEY.

Watter Lippman, *Essays on the Public Philosophy*, Little Brown & Co., 1955

3. 국내논문

고영복(1988), 청소년의 비행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제54회 청소년논단.

김수환(1991), 청소년문제의 본질 무엇이 문제인가, {계간아산} 춘계호 통권50호.

김승규(1990), 소년범죄동향, {청소년범죄연구} 8집.

- 김영주(1987), 소년범죄의 동향과 예방대책, {검찰} 제95집, 대검찰청.
- 김용숙(1986), 청소년문제 그 현주소, {청소년논단} 제5집.
- 김유광(1987),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알아본다 {청협} 11권4호, 겨울호.
- 김준호, 사회학분야에서의 청소년비행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창간호.
- _____ (1989), 청소년비행의 개념과측정, {청소년범죄연구} 7집, 법무부.
- 김현수(1987),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알아본다 {청협} 11권4호, 겨울호.
- 김형태(1988), 청소년 문제 그 실태와 대책, {교정} 4월호, 법무부.
- 백완기, 공익에 관한 제학설의 검토, {법률행정논집} 제19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손충기(1978), 도덕성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부(1987),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알아본다 {청협} 11권4호, 겨울호.
- 안창일(1984), 비행청소년의 현주소와 선도대책, 상계서, 제41회논단.
- 윤덕중(1989), 소년집단비행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범죄연구} 7집, 법무부.
- 이재창(1987),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알아본다 {청협} 11권4호, 겨울호.
- 이훈구(1978), 청소년 비행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 전병식(1986), 청소년 비행문제의 한 일간 비교,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제47회 청소년논단.
- 전영일(1986), 청소년지도를 위한 환경적 접근, {사회복지연구} 13, 대구대학교.
- 정하성(1986), 청소년문제 그 현주소, {청소년논단} 제5집.
- 주건성(1986), 청소년문제 그 현주소, {청소년논단} 제5집.
- 차경수, 학교교육과 청소년문제, {계간 아산}.
- 표갑수(1986), 청소년문제 그 현주소, {청소년논단} 제5집.
- 한명희(1982), “인간의 의식과정과 도덕성 형성”, {현대사회}, , 60-90.
- 황응연(1985), 개방사회에서의 청소년 자율성 지도,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 제42회 청소년논단.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Adolescents* Moral and Public Interests

Park Jong-Ju*
Kim Sŏng-Kwan
Son Clung-Ki
Sim Dae-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 adolescents' moral and public interests with centering around Jun Buk area. The more specified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1.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moral and public interests
2. To find out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delinquent a period of 1980
3. To find out characteristics the actual conditions of adolescents' moral and public interests

The subjects for this were grouped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eshman, and working adolescents.

The proportional sampling method was used in allocating the number of subjects for each group of adelescents and regional distribution. 1820 subjects consisting with students, working adolescents.

Three kinds of "Actual conditions of Adolescents' Moral and Public interests"

questionnaire for students and working adolescents were developed by researchers and used for this study.

The statistical analysing method in this study were percentage(%), chi square(x²)test by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according to the proper research ques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satisfaction to the older generation, his(or her) parents, and the established moral principles of the Korean adolescents' were very low.
2. According to adolscents' response, his(or her) parents were pressed and controled to adolescents' behavior or thinking.
3. There was many adolescents which have a sense of inferiority complex of a economic a quection of money, and academic achivement.
4. Peer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world of the adolescent. Adolescents spend a great deal of time with their peers, Many of

*1.(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hilosophy)

(Dept. of Education)

(Dept. of Education)

(Dept. of Social Welfare)

— Won Kwang University—

their greatest frustrations and happiest moment come when they are with their friends has more conflicts and problems.

5. Adolescents perceived the juvenile delinquent and adolescents' problems

influenced with a family trouble and indifference of their parents.

6. According to this study, religious activity was good influence to the adolescents development of moral and public interests